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지속적인 쌀 생산 위한 핵심기술 정착에 전념할 터

한시적 쌀 프로젝트팀 구성, 새로운 전기 마련
‘얼굴있는 쌀’ 정착위해 신기술 개발 보급에 전념



손 남 석
충남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옛부터 쌀은 우리 민족의 먹거리요 짓줄로서 가치의 기준이 되어 오랜 세월동안 중요시 되어왔다. 60년대까지의 보릿고개도 70년대 통일벼 재배를 계기로 해결되면서 쌀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지고 재고량의 증가에 따라 쌀 소비촉진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96년도부터는 기상재해에 의한 생산량 감소 등으로 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쌀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쌀증산 의욕 고취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각종시책이 전개되었으며 교육 홍보 활동도 강화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충남에서는 97년부터 98년까지 한시적으로 쌀 농사만 전담하는 쌀 프로젝트팀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쌀생산 대책 추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국내 쌀 산업에 중요한 역할 담당

충남의 쌀생산 여건을 보면 2000년도 계획으로 볼 때 식부계획 면적은 17만3천2백70ha로 전국의 총 식부계획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 목표량은 6백25만9천석으로 전국 총 생산량의 17.7%를 점유하여 타 도 보다는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충남의 총 인구는 전국의 4.1%인 1백92만6천명('99년 기준)으로써 연간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양은 1백29만6천석('99년 전국 평균 소비량 96.9kg/1인당 기준)이다. 이는 총 생산계획량의 20.7%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충남에서 생산되는 쌀의 79.3%인 4백96만3천석은 타지역으로 반출되어 소비되고 있어 충남의 쌀 농사는 우리나라 쌀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생산성 증대로 경영비 절감에 도전

이러한 쌀 산업의 여건을 볼 때 충남은 먹기 위한 농사가 아닌 팔기 위한 쌀 농사를 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팔기 위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품질이 좋은 쌀을 생산하고 경영비를 적게 들이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품종의 특성과 땅심, 재배기술 등이 중요하며 경영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는 생산비를 적게 들이는 기술실천과 단위면적당 수량을 높여



쌀생산 핵심기술 실천 다짐대회

야 한다. 현재 충남의 여건으로 볼 때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여건은 충분하다고 본다. 즉 땅심, 재배기술, 품종선택 등 타 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경영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경영규모의 확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일시에 어렵고 기술적인 대안들을 계속 연구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단위면적당 같은 경영비가 투자된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증대된다면 경영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2000년도에는 상업농시대의 충청남도 쌀 농사는 생산성 증대 핵심기술 보급으로 10a당 쌀 550kg 지속 생산기반 정착의 해로 정하여 전념할 계획이다.

2000년도 쌀생산 6대 과제

농민들의 자율참여 유도로 기술 확산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6대 핵심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단계별로 중점 추진 하고 있다. 6대

핵심과제는 첫째, 충남지역에서 10a당 쌀 550kg 이상 생산 가능한 7품종(일품, 대산, 금남, 신동진, 농호, 남평, 남강)을 선발하여 총 식부면적의 50% 이상 재배하도록 할 계획이다.

벼종자 알선 상황을 보면 벼 보급종으로 총 식부면적의 10.4%, 시험장산 0.1%,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재배한 시범포산에서 생산된 종자 5.4%, 독농가에서 생산된 종자 자율교환 34.1%를 알선하여 총 식부면적의 50% 이상이 재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품질 다수성 품종의 특성상 도열병 등에 약한 것을 감안하여 재배계획 농가중 도단위 선도농가 6백50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군, 읍면으로 확대 실시하여 앞으로 정밀한 예찰 및 예방을 위한 지원방제와 현장지도 활동을 강화하여 도열병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기술 확산을 위하여 충청남도 쌀 연구회 회원 2천6백여명의 선도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자료제공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농촌지도자회 충남도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쌀

증산 선도시범포 3백개소에 쌀 550kg/10a 이상 생산가능 품종을 재배하고 각종 농작업을 선도하도록 하여 핵심기술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지거름은 반정도로 줄여 주어야

둘째, 질소질 비료의 적량 주기위한 현장지도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금년도 총 식부면적의 50% 이상 재배를 계획하고 있는 벼 품종의 특성상 표준 시비를 하더라도 550kg/10a 이상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가에서의 질소질 비료사용 실태를 보면 가지거름의 경우 기준 시비량의 3배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쌀 수량은 단위면적당 이삭수와 한이삭당 벼알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한 포기당 이삭수가 많으면 한 이삭당 벼알이 적게 달린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다. 가을에 벼 이삭을 세어 보면 한 포기당 이삭수는 20개 내외가 된다. 한 포기당 이삭이 20개 내외가 나온다면 현재 주고 있는 가지거름이 적정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계모내기를 할 때 한 포기당 몇 분이 심어지는가? 보통은 한 포기당 7~10개가 심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가지는 1분에서 1~2개의 가지만 나오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삭도 나오지 않는 가지를 많이 늘이려고 굳이 가지거름을 기준 시비량의 3



벼 품종비교 시범포



쌀생산 핵심기술 선도농가 특별교육

배씩을 줄 필요가 없다. 금년도에는 가지거름을 전년도에 주었던 양의 절반만 주기를 권하고 싶다. 개개의 농가에서 볼 때는 반을 줄여 주는 것이 얼마되지 않겠지만 전 농가에서 각각 가지거름의 반을 줄여 준다면 요소로 약 6만9천2백84포가 절감되어 금액으로는 4억여 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취약농가 대상으로 도복예방 위한 교육 강화

셋째, 도복 필지 없는 들판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복의 원인을 볼 때 도복에 약한 품종재배, 질소질비료 과비, 문고병·벼멸구 방제소홀, 풍수해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복 상습지역에는 도복에 강한 동안·대산벼 등을 집중 알선 공급하고 주요 농작업시기에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집중계도 함으로써 도복없는 들판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전년도에 도복이 심했던 동진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하여 '99년 7.6% 재배되었던 면적을 줄일 계획이다.

예찰활동 강화 및 적기방제 유도

넷째, 완벽한 병해충예찰 방제를 위하여 문제시되고 있는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벼멸구, 벼물바구미 등에 대한 정밀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적기방제를 유도하여 피해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취약지 상습지에서는 상사업에서 지원되는 병해충방제 비용이 지

원되며 특히 이삭도열병 방제를 위한 지원 방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섯째, 적정 포기수 확보는 평당 75주 이상 이양이 되도록 현장활동 강화 및 홍보에 전념하고 여섯번째는 지력증진을 위하여 가축분뇨액비화 시범을 8개소에 1백60ha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민들이 보고 배우는 현장교육장 설치

농민들이 보고 느끼고 실천하는 쌀생산 종합 시범 단지를 15개소 1백여ha에 기계이앙, 직파, 무경운 재배방법, 새로 나온 품종 전시, 적정주수 이앙, 제초제 처리방법, 적정시비 등 재배방법 별로 전시하여 새기술 확산 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년도는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 정착의 해로 보고 단계별, 주요 농작업 시기별, 현장활동 강화와 홍보교육에 전념할 계획이다. 상업농시대의 충남쌀을 전국 최고의 상품으로 유지 발전시켜 얼굴있는 쌀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새기술의 연구개발, 보급에 전념할 계획이다. **농약정보**